

한국어 문법 교육의 방향

박영순*

1. 서론

여기서 말하는 문법 교육은 한국어의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경어법 등 다섯 분야를 포함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문법은 기술문법(Descriptive Grammar)과 규범문법(Prescriptive Grammar)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인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에서는 규범문법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규범문법에 입각하여 문법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되, 위의 다섯 분야를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총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 문법 교육의 내용

문법 교육의 내용은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의 내용이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 한국어세계화재단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별 내용도 그 수준에 있어 단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1) 쉽고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친다.

가령 문자 교육이라면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이용하여 모음과 자음의 생성 원리를 이용하여 가르치되, 기본자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 가획의 원리를 이해시킨 다음 글자 형성 원리를 다루되, 받침이 없는 쉬운 단어부터 충분히 다루고 나서, 받침이 있는 글자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음운론 교육이라면 문자 교육과 연계하되 받침이 있는 글자를 발음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연음법칙부터 가르친다. 형태론이라면 국어의 품사체계와 격조사, 그리고 동사의 어간과 어미를 다룬다.

통사론에서도 문장 구성의 언어보편적인 원리를 먼저 이해시킨다. 예를 들면, 문장은 반드시 주어와 술어가 있어야 하는 점과, 몇 개의 단어가 순서에 맞게 배열되어야 하는데, 한국어의 어순은 SOV라는 것을 이해시킨다.

2) 언어 보편성과 한국어 개별성을 가르친다.

새로운 단어를 형성할 때도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접사에 의한 파생법과 실질형태소들의 결합에 의한 합성법이 있는 것은 언어 보편성이므로 원리만 이해하게 하면 되고, 접사 하나 하나의 의미와 용법은 한국어 개별성이므로 반복 훈련을 통해 기억하고 암기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통사론에서도 언어 보편적인 문장 구성의 원리를 이해한 다음 한국어

의 어순, 1, 2인칭의 주어 탈락 같은 한국어 개별성에 대하여 이해시킨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언어에서나 문장은 최소한 주어 하나와 술어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서술어가 타동사일 때는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한다는 것,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순서가 SOV형, SVO형, VSO형 중 하나라는 것은 언어 보편성이지만 한국어에서는 특히 구어에서 주어가 1인칭, 2인칭일 때 주로 생략되는 점은 한국어의 개별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또한 영어에서는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통사규칙인 WH이동이 한국어에는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실제의 예를 통해 확인시킨다.

그리고 인칭대명사나 경어법이 있는 것은 언어 보편적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순위 청자의 경우 2인칭 대명사가 없는 것은 한국어의 개별성임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어의 개별성은 대명사를 공부할 때, 통사론에서 대명사화를 가르칠 때, 그리고 경어법을 가르칠 때 반복해서 학습함으로써 완전히 익힐 수 있을 것이다.

3) 대규칙 및 필수규칙을 주로 가르친다.

예를 들어 음운론에서 연음법칙, 비음동화, 구개음화는 대규칙(major rule)이고 필수규칙(obligatory rule)이다. 그러나 전설모음화는 수의규칙(optional rule)이고, 소규칙(minor rule)이며, 비표준화규칙이다. 그러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는 전설모음화 같은 것은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한 형태론에서 동사 활용의 경우 어간은 변하지 않고, 어미만 달라지는 것은 대규칙이다. 그러나 ‘갈:다→걸어, 묻:다→물어, 듣다→들어, 산:다→실어’ 같은 경우는 어간의 ‘ㄷ’이 활용할 때 ‘ㄹ’로 변하는 하나의 소규칙을 이룬다. 이러한 대규칙과 소규칙을 동일한 비중으로, 동시에 가르치면 학생들은 매우 혼란을 느끼고,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터득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규칙, 필수규칙을 먼저, 그리고 훨씬 비중 있게 다루고 난 후 시차를 두고 필수적인 소규칙을 다루되 수의적인 소규칙(예: 전설모음화)은 다루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교사가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할 것과 학습자 스스로 터득하거나 노력해서 이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교수 학습한다.

이때 언어 보편적인 현상과 국어 개별적인 것을 구별하여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음운론 초기 교육에서는 한국어 음운을 표기법과 함께 1음절 1문자의 특성을 이해시키며, 다른 언어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도한다. 문자 지도에서는 훈민정음 제자 원리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형태론 분야에서는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암기를 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구별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조사 중에는 문법적 기능만 하는 것도 있고, 의미에 관여하는 것도 있다는 원리는 이해시키고, 각각의 조사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하여는 조사 하나 하나에 대한 의미를 암기할 수밖에 없으며, 문장에 알맞는 조사 넣기 훈련의 반복으로 통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어의 조사는 문법 형태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미 문장을 공부한 학습자는 조사의 기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력은 이미 획득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조사 각각에 대한 교수 학습 시기나 방법은 전적으로 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5) 언어 구조와 사용 원리를 구별하여 교수 학습한다.

청자가 누구냐,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어떠냐, 때와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알맞은 호칭, 문장어미, 어휘, 조사를 선택해야 하며, 상대방이 손 위일 경우 화자 자신을, ‘저’로 낮추어야 하는 한국어의 개별성이 있다. 어떤 언어에나 존대와 비존대, 친숙과 비친숙의 구별이 있지만, 한국어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구별이 복잡하고 정교하다. 그러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는 경어법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요구된다.

문법 교육에서는 언어기능 교육, 특히 읽기와 쓰기 교육을 함께 시켜도 좋을 것 같다. 고급 단계에서는 상황에 적절한 언어의 사용과 동일한 내용에 대한 다양한 표현법을 이해시킨다.

6) 능력(Competence)과 수행(Performance)을 구별해야 한다.

학습자가 동일한 오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언어능력(competence)상의 오류인지 단순히 수행(performance)상의 오류인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수행상의 오류일 때는 주의를 주는 정도로 한 번 언급만 해주면 되지만 능력상의 오류일 때는 교사가 특별히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꽃이”를 [꼬시]로 발음한다고 할 때, 다시 한 번 발음하게 하여 [꼬치]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두 번, 세 번을 반복시켜도 여전히 [꼬시]로 발음한다면 언어능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꽃을 → [꼬출], 꽃이 → [꼬치]” 등으로 발음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반복하여 연습을 시켜야 할 것이다.

Soo-Ah Kim-Yeun(1993: 236~238)에 의하면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조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조사 교육에 대한 교사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에, 에서, 에는, 에서는’의 구별이 어렵다고 한다. 전은주(1994)에서도 조사가 없는 언어를 모어로 하는 학생들이 조사를 빠뜨리거나 틀리는 경우가 많음을 보고하

고 있다. 그러므로 능력(competence)상의 오류로 판단될 때는 반복학습, 학습자 모어와의 대조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확실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수해야 한다.

3. 문법 교육의 방법

문법 교육의 방법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구두칭각식, 문법 번역식, 의사소통식 등이 한 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문법 교육 방법과는 좀더 다르게 제시하고자 한다.

1)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문법은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의미론, 문장의미론, 담화의미론 등으로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안 가르쳤는지 파악이 되고,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각 분야별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교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음운론이라면 한국어의 음절 구성 원리를 이해시킨 다음 이러한 음절은 하나의 글자를 이루게 되는 원리를 알려주면 다른 언어들과의 차이점도 금방 이해되면서 한국의 표기법을 보다 쉽게 습득할 것이다. 그 다음은 한국어 단어의 초성과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올 수 없는 제약을 다룬 다음, 이러한 제약 때문에 초성에서는 아예 두개의 자음이 초성으로 오는 음절도, 글자도 없다는 것과, 두 개의 자음이 종성에 올 때는 하나가 탈락하는 음운규칙에 대하여 이해시키는 등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학습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2) 문법 사항을 단계적으로 가르친다.

예를 들어 경어법에서 존대와 비존대로 구분하는 것은 언어 보편적이다. 그러므로 외국어교육에서는 언어 보편적인 것부터 다룬다. 그 다음은 한국어에서 청자가 누구냐,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어떠한냐, 발화의 때와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알맞은 호칭, 문장어미, 어휘, 조사를 선택해야 하고, 상대방이 손위일 경우 화자 자신을 ‘저’로 낮추어야 하는 국어의 개별성이 있다. 어떤 언어에나 존대나 비존대, 친숙과 비친숙의 구별이 있지만 한국어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하다. 그러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는 경어법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요구된다. 우선 첫 단계에서는 존대형만 가르치고 두 번째 단계에서 평교형만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한다. 물론 고급 단계에 가면 이해 언어로 중간 단계의 반말체와 조금 더 다양한 호칭체계를 도입한다. 그러나 내국인처럼 복잡다단한 등급과 다양한 호칭을 모두 다룰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경어법 학습의 1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도만 다룬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경어법 (간략화한) 기초 1단계

- 문장어미-존대형 { -습니다
 -요
- 호칭-존대형 { 선생님, 부장님 ...
- 존경의 선어말어미 -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 학습에서는 문법을 5~6단계 정도 나누어 각 단계마다의 실라버스를 작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각 단계별 실라버스를 대략적으로 구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이 안은 앞으로

많은 학자와 일선 교사들이 몇 차례의 세미나, 토론, 실험 적용 등의 과정을 거쳐 계속 수정 보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우선 필자의 기본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 학습에서는 문법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필수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선택적인 것은 최대한 다루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필자가 제안하는 문법 분야의 교수 학습 단계 모형이다.

<제1단계>

문법을 이론적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자모 익히기와 발음의 기본 원리, 기본적인 통사구조만 알도록 한다. 경어법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지 말고 기본 문형에서 ‘-습니다’ 형만 다룬다.

<제2단계>

제1단계에서 배운 것을 충분히 복습하고, 문장의 필수 성분 구조와 격 조사를 알게 한다. 발음에서 연음의 원리를 알게 한다. 필수, 수의성분이 다 있는 문형에서 어미 ‘-요’ 형을 다룬다. ‘-습니다’와 ‘-요’는 각각 공식-비공식, 정중형-친숙형 정도로만 다룬다. ‘-습니다’ 형을 ‘-요’ 형으로, ‘-요’ 형을 ‘-습니다’ 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다.

<제3단계>

제2단계까지 배운 것을 복습하고, 문장의 수의적인 성분의 유형과 기능 및 용법을 알게 한다. 또한 격조사 외에 의미격 조사의 몇 가지 유형과 그 의미를 알게 한다. 그런 다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울 때는 조사 하

나 하나에 대한 의미와 용법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학습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적당한 조사 넣기 훈련을 시킨다. 1, 2, 3단계에서 배운 문법적인 원리들을 이용하여 실제의 문장을 20개 이상 써 오기 과제를 준다. 종성자음의 불과음화, 비음동화, 자음탈락, 구개음화 규칙을 교수 학습하고, 이러한 음운규칙을 적용하여 발음해야 하는 자료를 많이 제시하고 소리 내어 여러 번 발음하게 한다. 통사론에서는 한국어 문장에서의 주어탈락 현상을 교수 학습한다.

<제4단계>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조사를 다루며 문장의 시제에 대하여 학습한다.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문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들 문형을 생산하는 여러가지 종결 어미와 문장 부호도 학습한다. 즉 용언 활용에 대한 원리를 익힌다. 발음 문제에서는 두음법칙, 경음화, 격음화 등 필수 음운 규칙만 학습하고, 수의적인 음운 현상은 다루지 않는다(예: 전설모음화). 한국어의 조어법 원리를 교수 학습한다. 즉 파생법과 합성법을 다룬다.

<제5단계>

제4단계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각각의 유형에 맞는 문장을 30개 이상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또한 접사와 여러 단어들을 제시하고, 파생어와 합성어를 만들어 보게 한다. 연결어미와 상(相)에 대해 학습하고 의존명사를 교수 학습한다. 관계절, 접속문에 대해서도 교수 학습한다. 내포절이 있는 문장과 접속어를 넣어 접속문을 만드는 과제를 준다. 한국어 전반에 관한 경어법에 대하여 총정리하되 ‘-네’ 형과 ‘-오’ 형은 초급, 중급에서는 다루지 말고 3등급만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하도록 한 뒤 고급 정

도에서는 이해는 시키되(독서와 듣기를 위해서), 사용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즉 필수 등급인 ‘-습니다’, ‘-요’, ‘-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며, 나머지 세 가지 등급은 선택적인 등급이라는 것을 주지시켜 6등급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다.

<제6단계>

제5단계까지 배운 것을 모두 적용하는 문장의 예를 50개 이상 만들어오는 과제를 준다. 제5단계까지 배운 문법 규칙을 총정리한다. 즉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분야별로 필수사항을 학생들이 스스로가 다시 복습하고 한국어 문법의 전반적인 원리를 총정리, 확인한다. 그 다음은 사회언어학적 원리를 교수 학습한다. 즉 동일한 내용이라도 화자와 청자간의 관계, 발화의 때와 장소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나 표현 방법이 달라져야 함을 학습한다. 의미론에서는 중의성, 다의성, 동음이의어, 관용어, 강조법, 겸손법, 비유법, 긍-부정, 능-피동, 주-사동, 간접화법 등에 대하여 교수 학습, 복습하고, 과제를 통하여 이 모든 한국어 문법과 사용법을 익히게 한다. 마지막으로 구조 문법과 변형 문법 이론을 소개하여 통사론적인 면에서나 음운론적인 면에서 관점의 차이와 문법 해석에서 그 기술의 차이점도 간단히 살펴본다.

대략 위와 같은 단계에 맞춰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올라가며 학습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어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교사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문법은 대체로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끼기가 쉽기 때문에 어떻게든 흥미있고, 지루하지 않은 수업이 되도록 교사는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예문 하나라도 재미있게 들고, 규칙 설명도 인생이나 어

편 게임에 비유해서 하는 등 방법은 많이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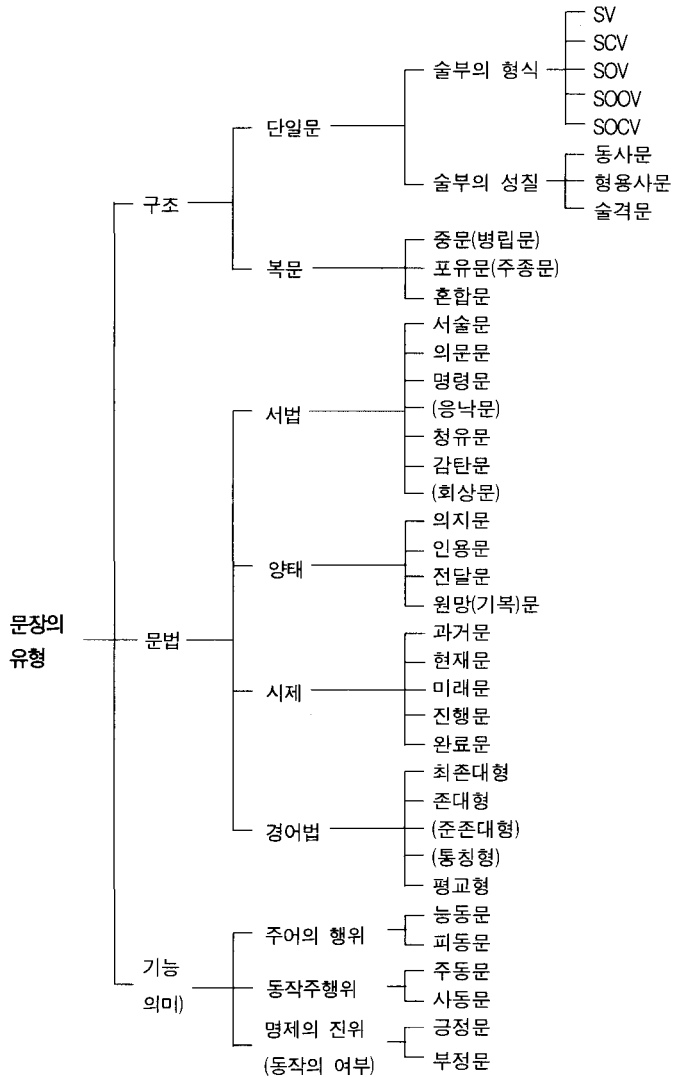
3) 학습자의 언어와 한국어의 대조분석을 통하여 가르친다.

교사가 학생들의 모국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그 언어와 한국어를 대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주면 학습자는 두 언어에 모두 흥미를 느끼고 훨씬 더 정확하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에 양순 파열음이 있는 것은 국어와 같지만 양순 파열음은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변별되는 데 비하여 한국어에서는 평음, 경음, 격음으로 변별된다는 식으로 대조 분석을 통하여 설명하면 이해도 빠르고 두 언어를 더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사론이라면 영어 문장에 서는 단어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여 동일한 명사라도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 기능과 의미가 달라지지만 한국어는 조사로서 문법적인 격을 나타내므로 단어 순서는 영어에 비해 좀더 융통성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보여줌으로써 조사 사용 원리를 배움과 동시에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어 목표어 학습에 더 효과적이다.

4) 통합적으로 가르칠 것과 문법만을 독립적으로 가르칠 것을 구별하여 가르친다.

어떤 언어에서나 마찬가지로 문장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구조면에서 보면 단문과 복문이 있으며, 단문은 다시 동사의 성격에 따라 5형식(SV, SOV, SOOV, SCV, SOCV)이 있고, 시체에 따라, 양태에 따라, 그리고 경어법에 따라서도 유형 분류가 가능하다. 또는 의미기능 면에서 볼 때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등이 있는데 이 점 역시 언어보편적이다. 그리고 복문은 다시 중문과 포유문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의 문장

유형을 종합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관점과 기준에 따라 문장 유형이 달리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이들 유형에 맞는 예문들을 제시하고 문장의 구조와 의미에 따라 예문들을 변별해 보도록 한다. 또한 평서문을 주고 의문문으로 고치게 한다든지 의문문을 명령문으로 고치게 하는 등의 훈련을 통하여 문형에 대한 이해와 사용을 돕는다. 그런데 초급에서 이 모든 문장유형을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교사가 문장 유형의 난이도를 조정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어법에 맞게 문장을 고치는 일, 잘못된 문장을 바로 잡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형 연습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문뿐만 아니라 복합문이나 접속문으로 만들어보기, 접속문이나 복합문을 분해해 보기 등도 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과제를 통하여 교실에서 배운 모든 문형에 맞는 문장을 세 개 이상씩 작문해 오도록 해도 좋을 것이다. 일기나 편지 등을 쓰도록 하여 교사가 검토해 주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옆에 앉은 짝끼리 대화를 주고받도록 하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것은 구두로도 좋고 문자로도 좋을 것이다. 학생의 한국어에 대한 수준에 따라 최대한 다양한 문형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 과제를 주고 요약해 오기, 줄거리 쓰기, 독후감 쓰기 등을 통해서 독해, 통사론, 작문교육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5) 원리에 대한 이해 부분과 암기해야 하는 부분을 구별하여 교수 학습한다.

예를 들어 형태론 분야에서는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암기를 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구별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조사 중에는 문법적 기능만 하는 것도 있고, 의미에 관여

하는 것도 있다는 원리는 이해시키고, 각각의 조사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하여는 조사 하나 하나에 대한 의미를 암기할 수밖에 없으며, 문장에 알맞은 조사 넣기 등 훈련으로 통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암기해야 하는 조사도 중요한 것만 목록을 만들고, 몇 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6) 재미있게 교수 학습한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학습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재미있게 수업을 이끌어 가느냐, 딱딱하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조사 ‘는/은’을 가르칠 때는 주격조사이면서 대조, 강조 등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는 것을 설명할 때 사람에게 비유하여 사람도 코미디언, 주부, 봉사단체의 회원 이런 식으로 다중 기능 또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형태소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훨씬 부드럽고, 이해하기도 쉬우며, 좀더 재미있게 문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주기능과 부차적기능으로 나누어 얘기해도 좋을 것 같다. 또는 문법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매우 재미있는 동화나 소설 등의 텍스트를 이용하여 재미있는 이야기나, 유머 속에 녹아있는 문법적 요소들을 추출하여 설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 문법 내용을 교수 학습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결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은 규범문법을 다루되, 언어 보편성과

한국어 개별성으로 나누어 교수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한국어 문법 교육은 모국어로서의 문법 교육보다 훨씬 단순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필수규칙, 대규칙 중심으로 교수 학습해야 한다. 또한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부분과 암기해야 하는 부분을 구별하여 원리는 교실에서 함께 교수 학습하고, 암기해야 할 부분은 학습자 스스로가 공부하도록 과제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원리는 가능한 한 학습자 언어와 대조하여 교수 학습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요컨대 문법 교육은 언어기능교육과 함께 통합적으로 하되, 최대한 재미있게 교수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어] 규범문법, 기술문법, 대규칙, 소규칙, 언어사용원리

참고문헌

- 김유정(1998), 「외국어로서의 문법교육-문법항목 선정과 단계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9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재욱(2002), 「한국어교육에서의 격조사 교육」, 박영순 편저, 『21세기 한국어 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김재욱(2005), 「문법교육방법론」, 민현식, 조항록, 유석훈, 최은규 외(2005), 『한국어교육론』 2, 한국문화사.
- 김제열(2001), 「한국어교육에서 기초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 연구」,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00),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새국어생활』

* 본 논문은 2005. 12. 4 투고되었으며, 2005. 12. 7 심사가 시작되어, 2005. 12. 12 심사가 종료되었음.

제10권 제2호 국립국어원

- 민현식, 조항록, 유석훈, 최은규 외(2005), 『한국어교육론』 1,2,3, 한국문화사.
- 박영순(2004), (개고판) 『외국어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월인.
- 방성원(2005), 「문법교수 학습의 내용과 방법」, 민현식, 조항록, 유석훈, 최은규 외(2005),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사.
- 백봉자(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사전』, 연세대 출판부.
- 이미혜(2005), 「문법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 민현식, 조항록, 유석훈, 최은규 외(2005), 『한국어교육론』 2, 한국문화사
- Adair-Hauck, B.R. Donato, and P.Cumo-Johanson(2000), "Using a story-based approach to teach grammar." In J. Shrum and E. Glisan (eds.)(2000), *Teacher's handbook: Contextualized Language Instruction*, Boston: Heinle & Heinle.
- Hawkins(2001), *Second language syntax*, Oxford: Blackwell.
- Hinkel, E. and S. Fotos(2002), *New Perspectives on grammar teaching in second language classroom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Larson-Freeman(2001), "Teaching Grammar." In M.Celce-Murcia(ed.) (2001),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Boston: Heinle & Heinle. 251-266.
- Larson-Freeman & Diane(2003), *Teaching Language: From Grammar to Grammming*, Boston: Thomson-Heine.

■ Abstract

A Direction of Teaching Korean Grammar

Park, Young So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dvisable direction of Korean grammar education. In this paper, Korean grammar education includes Korean phonology, morphology, syntax, semantics, and pragmatics. It will be appropriate that we discuss about prescriptive grammar in the Korean Grammar as a foreign language. In according to this point of view, I will suggest the direction of grammar education in terms of prescriptive grammar. The five domain that I refer to above are treated as the whole.

It will be efficient that the universality of language is distinguished from the speciality of Korean in the Korean Grammar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And also, the Korean Grammar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must be treated briefly and systematically than the native's, and it must be taught with obligatory rules and major rules of the Korean as the central figure. In addition to, the principles to be comprehended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contents to be memorized. Teacher can teach the principles in the class, and the contents to be memorized can be a homework for students. The contrastive work of the mother tongue with the target language can help the comprehension of principles. Grammar education, therefore, must have relation with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and it is necessary to study about interesting teaching methods.

[Key Word] prescriptive grammar, descriptive grammar, major rule, minor rule, principle of language use